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44호 【루계 제26218호】 주체107(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위대한 당이며 사회주의조선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들이 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이것은 어머니당의 슬하에서 성장하고 당과 인민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기대속에 혁명의 지휘성원이 된 우리 일군들의 마땅한 본분이며 도리이다.

지금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온넋과 육신을 활활 불태우며 헌신분투할것을 바라고있다. 일군들이 고생하는것만큼 인민들의 웃음이 꽃펴나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아진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습벽화된 일군,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일군이 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사상과 뜻, 발걸음을 함께 하는 진짜배기혁명전우이다.

모든 일군들이 삶의 순간순간을 인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수놓아갈 때 우리의 혁명진지는 더욱 억척같이 다져지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은 남김없이 과시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과 국가활동,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며 헌신이다. 오늘 우리 당은 온 나라에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거창한 작전들을 펼쳐 펼치고있다.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는가,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질적인 전진이 이룩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투쟁기풍, 일본새에 달려있다.

일군들의 인민성은 곧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이고 혁명을 대하는 태도문제이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뼈속깊이 새아박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곧바로, 정보로 걸어가야 한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당과 대중의 혈연적뉴대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혁명적당의 불패성과 전투력은 대중과의 혈연적뉴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우리 당의 공고한 대중적지반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멸사복무정신의 결정체이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인민은 우리 당의 생명의 뿌리이고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떠나서 자기의 존재와 혁명의 전일보에 대하여 단 한시도 생각해본적이 없다. 인민을 위할수록,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혁명대오가 튼튼해지고 혁명이 전진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혁명관이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강행군길을 이어가고계신다. 령도자의 불철주야의 혁명시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사색과 실천의 전과정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순간순간으로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일군들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정과 다심한 손길로 인민들을 돌보고 인민이 바라는 일, 인민이 덕을 볼수 있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일군이 진심으로 당을 받드는 일군이다. 모든 일군들이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 때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은 더욱 공고해지고 우리 혁명대오는 억척의 성새로 다져지게 될것이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세상에 불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철저히 구현하였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는 력사의 광풍속에서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다.

지금 우리 인민은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강행돌파하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굴함없이 전진해나가고있다. 온 나라에 우리 제도제일주의, 두철한 사회주의신념이 백박치게 하는데서 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일군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일군들이 밤이 닳도록 뛰며 애써 노력하여야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자기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가 전체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은 사회주의의 진보습이며 높아가는 인민의 웃음소리는 사회주의전진가이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한생이 어린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혁명적본태를 지키고 빛내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한몫을 장그리 묻대워야 한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총폭발시키기 위한 근본열쇠이다.

인민대중의 정신력은 기적을 낳는 어머니이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정과 창조적적극성이 분출될 때 뚫지 못할 난관,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표술은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지니고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는데 있다. 늘 끓는 전투현장에 파지를 정하고 남먼저 앞세를 메는 일군, 대중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고락을 같이하는 일군, 종업원들의 물질문화생활보장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일군이 있는 곳에서 생산장성의 동음이 울려퍼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나래치는 법이다.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일군들은 사람들의 생활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속고충과 생활상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는 어머니다운 품성, 고생은 자기가 도맡아하고 평가와 혜택은 인민들에게 먼저 차례지게 하는 고결한 풍모, 여기에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고조시켜나가는 비결이 있다.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의 열도이자 자기 단위의 비약적발전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을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가야 할것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아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아박고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높이 우리의 혁명진지를 백방으로 다지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 인생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형언할수 없는 만난시련속에서도 일편단심 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변함없이 받들어온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생활, 흡족한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의 행복을 지켜 화선에도 결연히 나서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과 인생관으로 자신들의 사상정신을 정화시켜야 한다.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인민생활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비상한 각오,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몫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희생정신으로 온넋을 불태워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대담한 설계가,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힘은 군중속에 있고 성과의 예비는 조직사업에 있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당정책에 민감해야 하며 당의 목소리에서 비약과 혁신의 종자를 찾아쥐고 사업을 전개해나가는것을 제질화하여야 한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인민의 립장에 서서 조직진행해나가야 한다.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일단 결심하고 시작한 일은 그 어떤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난관에 부닥친다고 하여도 두려움없이 완강하게 뚫고나가 끝장을 보고야마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해나가야 한다.

타고난 일군, 완성된 혁명가란 없다. 인민우에 군림하고 제살궁리만 하는 현상들은 례외없이 당성단련이 부족하고 자신을 특수화하는 사람들속에서 나온다. 모든 일군들은 굴러가는 돌에도 이끼가 낀다고 조직사상생활을 게을리하면 저도 모르게 변질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혁명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며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제 집안일처럼 환히 꿰들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현대과학기술지식과 문화지식을 비롯한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정당원의 자세와 립장에서 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인민들앞에서 자신의 사업을 평가받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한다. 군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며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줄 알고 움직일줄 아는 실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직권이나 간판을 가지고 자기의 발언권을 세우려고 할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사업상권위를 세우고 대중의 신망을 얻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인민들에게 부담을 준 일은 없는가, 제 리속을 채운 일은 없는가를 늘 돌이켜보며 자신을 부단히 채찍질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당조직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정치적보호자이다. 당조직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야 일군들이 한치의 탈선도, 사소한 오점도 없이 당을 받드는 충정의 한길, 인민을 위한 참된 복무의 길을 곧바로 걸어갈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일군들을 당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성, 혁명적원칙성과 고지식하고 청렴결백한 품성을 지닌 혁명의 지휘성원들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일군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절대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책임일군들일수록 더욱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여 그들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앞장에서 충실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이미 세도와 관료주의를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위험한 독소로, 적들을 도와주는 리적행위로 보고 그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개인리기주의, 공명심, 안일해이된 사상관점에 사상전의 예봉을 돌리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밑뿌리째 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 어머니당의 존엄높은 모습에 먹칠을 하며 우리의 혁명진지를 허물어뜨리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가 누구이든 지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것은 우리 당의 영원한 투쟁강령이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열혈의 총신, 기수가 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1일 오카미 겡이찌 사무국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동지회고 페네수엘라전국위원회가 11월 24일에 결성되었다.

주체사상연구 페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 오마르 로페스를 명예위원장으로, 페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정치비서국 총조정자인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페네수엘라련대성위원회 위원장 펠릭스 헤쑤스 엘라스께스 까스띨로를 위원장으로 하는 회고위원회는 공산당, 모두를 위한 조국당, 페네수엘라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를 비롯한 여러 정당, 단체, 기관의 대표들을 망라하고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보도물들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며 주체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 슬로벤스꼬위원회가 1일 브라찌슬라바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슬로벤스꼬주체사상지지 및 연구협회 위원장인 슬로벤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완 드락슬레르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는 이슬란드회고위원회가 1일 레이캬비크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슬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 및 친선협회 위원장 존 아르니 할도르쏜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2일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알따이공화국지부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부위원장 까드끼나 다리야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회고모임을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선군혁명업적 천만의 심장속에 영원하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선군혁명승리관을 수많은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참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대기념비적창조물로, 종합적인 교양거점으로 새로 꾸려진 때로부터 5년 남짓한 기간에 230만여명의 참관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는 올해의 12월에 들어와 선군혁명승리관을 찾는 참관자들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만년보물고이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정신과 위훈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승리의 전당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 찬연히 빛나고있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집대성한 전시관을 새로 꾸리도록 하시였다.

학술내용구성안과 학술배렬도를 보아주시고 전시형식과 방법도 현지에서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집약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선군혁명승리관이 훌륭히 꾸려질수 있게 되였다.

선군혁명승리관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한평생 조국의 최전방에 계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헌신과 로고를 가슴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앞에서 참관자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있다.

력사의 그날과 더불어 우리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의 새로운 전환기가 펼쳐지게 되였음을 참관자들은 폐부로 절감하고있다.

1990년대 중엽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수호전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사진문헌들을 보며 참관자들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고 줄달음쳐온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를 격정속에 돌이켜보고있다.

선군혁명승리관에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전시물들이 전시되여있다.

선군혁명령도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와 승리의 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는 선군혁명승리관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곳을 돌아본 외국의 벗들도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선군령도업적에 대하여 칭송하면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주체조선의 만년보물고로 일떠세우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업적과 더불어 영웅조선의 승리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장 숭고한 애국충정과 불멸의 공적은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오늘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으로 끝없이 흐르는 참관자들의 대오는 선군의 기치높이 불패의 군력을 마련해주심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끝없이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자력갱생정신으로 생산정상화의 토대 마련

단천제련소에서

단천제련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정상화의 활로를 힘있게 열어나가고있다.

올해에만도 제련소에서는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연회수공정을 일떠세우고 수입에 의존하던 시약을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탄산바리움생산공정도 확립하였다. 또한 배소공정과 산화아연생산공정에 가치있는 새 기술을 도입하고 60여종에 160여대에 달하는 설비를 자체로 제작하여 생산정상화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단천제련소 일군들은 올해 연회수공정건설에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설비들을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고 주요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연회수공정조업을 하루빨리 앞당기는것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심과업의 하나로 틀어쥔 당조직에서는 건설현장에 전투화지를 정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공사를 빠른 속도로 밀고나갔다.

제련소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하나의 생산공정을 일떠세우고 하나의 설비를 만들어도 철저히 우리 식으로 창조해나갔다. 결과 연회수공정확립에 필요한 50여종의 설비를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시운전을 보장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해공정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시약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전개하였다.

제련소기술자들은 그 어떤 어려운 기술적문제도 제힘으로 풀어나갈 배짱을 지니고 달려붙어 연제거시약을 해결할수 있는 탄산바리움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설계하였다. 일군들은 이에 기초하여 공정확립에 필요한 13종에 59대에 달하는 설비를 100% 자체로 제작하는데 힘을 넣었다.

전해직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헌행생산을 밀고나가면서도 공무직장 로동자들과 함께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설비제작전투를 벌려나갔다. 피라는 노력끝에 새로운 생산공정을 확립함으로써 제품의 순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제련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주체적인 제련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새로운 기술을 확립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여러 설비를 우리의것으로 제작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갔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제련소에서는 디젤유와 중유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우리 나라에 흔한 무연탄으로 배소로화입을 진행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산화아연생산공정에 불순물제거기술을 새로 창안도입하여 생산정상화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놓았다.

직장들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설비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제작하기 위한 전투가 활발히 벌어졌다.

조액직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진공보장에 필요한 마찰활편을 자체로 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동화직장 일군들과 기술자들도 연시동기를 자체의 기술로 제작할 목표를 내걸고 회로설계에 달라붙었다. 그리고 조액직장 로동자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며 기발한 방안을 탐구한 이들은 설비제작도 본격적으로 내밀어 두대의 연시동기를 짧은 기간에 만들어내였다.

제련소에서는 새 기술확립을 위한 다음해작전을 면밀히 세우고 그 준비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 얼마전 조액침강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끝냈다.

본사기자

농업과학연구기지건설 적극 추진

나라의 농업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당의 구상에 떠받들려 농업연구원 본원지구 5개 연구소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풀조와 외부미장공사가 결속된 토양학연구소건설장에서는 내부미장공사가 50%계선에서 추진되고있다. 농업생물학연구소와 식물보호학연구소 풀조공사가 완성되였으며 농업화학화연구소, 농업나노기술연구소 풀조공사실적은 90%계선을 넘어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농사의 시대이며 농업생산은 자연기후조건이 아니라 농업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사방법을 과학화하자면 그것을 과학기술적으로, 학술적으로 심화시킬수 있게 농업연구원아래 연구소들을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농업연구원 본원지구 여러 대상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공사속도를 높이고있다.

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호소에 높은 공사실적으로 화답할 열의밑에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면서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부족되는 세멘트, 강재, 목재를 비롯한 자재를 집중적으로 보장하였다. 자재분과, 시공분과를 비롯한 공사지휘부의 각 분과 일군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를 제 기있게 해나가고있다.

결과 11월초부터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는 높은 공사속도를 기록하며 기세좋게 진전하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혁신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토양학연구소건설을 맡은 농업연구원돌격대 일군들은 전투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그 수행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돌격대원들은 앞선 시공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이미 풀조공사와 창문달기, 외부미장공사를 결속한데 이어 내부공사성과를 확대하고있다.

공사량이 방대한 식물보호학연구소와 농업생물학연구소건설을 맡은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철근가공을 앞세우고 합리적인 휘틀조립방법을 받아들여 짧은 기간에 풀조공사를 완공하였다.

농업화학화연구소, 농업나노기술연구소건설장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타번지고있다.

성, 중앙기관돌격대와 내각청년동맹위원회 차광수청년돌격대를 비롯한 시공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벽체와 층막뜨크리트치기를 설계의 요구대로 다그쳐 풀조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내밀고있다.

국가계획위원회, 농업성, 농업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건설자들의 투쟁열의를 한층 고조시키고있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해 농업연구원 본원지구 여러 대상공사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강금성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가신 현지지도강행군

언제나 못 잊어 마음속에 그리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숭엄한 영상이 우리의 가슴에 더욱 사무치게 안겨오는 12월.

그 품속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살아온 우리 인민은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더듬어본다.

자신의 한생을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걷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오직 인민을 위하여!

바로 이 불타는 일념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맞고보내신 하루하루는 시작과 끝이 따로 없고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돌이켜볼수록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초인간적인 강행군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사무치게 어려와 격정을 금치 못하는 우리 인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였다.》

인민을 그처럼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신분, 인민의 요구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것을 평생의 지론으로 삼으시고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가 우리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전에는 수령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초가 1시간이 되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내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을 더 많이 할수 있게 1초가 1시간이 되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하면서 제일 아끼는것도 시간이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것도 시간이 흐르는것입니다.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일을 하여도 모자라는것이 시간입니다.

1초를 1시간이 되게 늘일수만 있다면 그만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겠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 …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분초를 쪼개가며 일하시면서도 시간이 모자라 1초를 1시간으로 늘이지 못하는것을 두고 그리도 안타까와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인 주체100(2011)년 9월 8일, 공화국창건기념일을 하루 앞두었던 그날도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로고를 바치신 정력적인 헌신의 하루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신 곳은 평양8월콤가공공장이였다.

이 공장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그처럼 마음써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솟아난 단맛감생산기지이다.

8월콤을 가지고 단맛감을 생산하는 기술공정에 대한 일군의 해설을 들으시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장비한 설비들의 기술적특성과 성능,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장의 로동계급과 련관부문 일군들이 짧은 기간에 공장을 개건현대화하여 단맛감을 대량생산해낼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해놓은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공장이 새롭게 개건현대화된 결과 지난 시기 쓴맛과 떫은 맛을 내던 8월콤당이 이제는 사랑의 고유한 맛을 내게 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 모든 생산공정들에 첨단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단맛감의 질을 현저히 개선하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킬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식료공업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공장일군들의 가슴가슴은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던가.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들의 단맛감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평양8월콤가공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나아갈 길을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단맛감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

참으로 평양8월콤가공공장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이 공장 로동계급이 식료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단맛감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금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밀쌈직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은 또 얼마나 만시람의 심금을 울려주는것인가.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늘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첨단설비들로 장비된 금성식료공장에 밀쌈직장이 새로 건설되게 되였다.

하건만 자신께서 바치신 로고는 다 잊으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성식료공장에서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맛좋고 영양가높은 밀쌈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직장을 새로 꾸리고 평양시민들에게 봉사하고있다고 하기에 밀쌈직장을 돌아보려왔다고 말씀하시였다.

밀가루지짐생산공정, 고기가공생산공정, 남새가공생산공정…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첨단설비들로 장비된 직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과 련관부문 일군들이 하나의 식료가공공장과 맞먹는 현대적인 직장을 짧은 기간에 훌륭하게 건설한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작업장마다에 즐비하게 늘어선 첨단생산설비들과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밀쌈들을 보고 또 보시며 공장의 로동계급과 건설자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속성식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식료품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데 대해서도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직장에서 새로운 밀쌈생산공정을 꾸려놓음으로써 지난 시기 밤과 국을 먹어야만 식사를 한것처럼 여기던 우리 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련관부문 일군들의 창조정신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바로 그것이였다.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모든 문제는 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고 식료품생산을 어느 정도 했는가 하는 문제이기에 앞서 인민에 대한 관점문제, 복무정신에 관한 문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인민에 대한 생각만이 꽉 차있었고 그 바탕에는 세상에 더없이 훌륭한 우리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뜨겁게 굽이쳐흐르고있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폭과 깊이를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잊지 못할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평양8월콤가공공장, 금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밀쌈직장과 함께 만수대지구건설장도 돌아보시였다.

그처럼 험한 건설장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고패친것은 과연 무엇이던가.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과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뜨거운 열망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수도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의 드높은 정치사상적열의와 로력투쟁에 의하여 지금 만수대지구에는 기존의 도시건설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 식의 새로운 거리가 시대적미감에 맞게 건설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정녕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력사를 새겨가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을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의 하루하루는 이렇듯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쟁그리 바치시는것으로 이어졌다.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것은 곧 끝없는 헌신이였으며 희생이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바로 여기에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함축되여있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온갖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며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끝없이 울려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세찬 격정을 불러일으키며 그리움을 더해주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자신을 초불처럼 쟁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시간속에 인민의 행복이 꽃피였고 조국의 번영이 이룩되였음을 력사는 영원토록 전해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전 광 남
사진 본사기자 김 광 림

추억깊은 야전솜옷

야전솜옷, 불러만 봐도 가슴이 젖어든다.

오늘도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눈보라를 헤치시며 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장군님 생각에 눈시울을 적시군 한다.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야전솜옷차림으로 추운 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쟁그리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로고를 어찌 다 헤아리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주체97(2008)년 12월 어느날 사리원닭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닭고기가공장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자동흐름식으로 된 가공공정들에서는 닭들이 쉬임없이 가공되여나오고있었다. 일군들은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없이 만족해하시리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곳의 생산능력에 대해 보고받으시고 가공된 닭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차츰 안색을 흐리시며 가공하는 닭들이 작다고 조용히 되이시였다.

한 일군이 먹이단위에 관계되는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기준먹이단위와 이 공장의 먹이단위가 얼마인가를 물으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닭의 종자와 종자알보장정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닭공장의 닭먹이단위가 다른 단위의 닭공장보다 높은것은 공장에서 좋은 품종의 닭을 기르지 못하고있는것과도 관련되여있는것 같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돼지나 물고기의 생산성을 높이는데서 종자가 기본인것처럼 닭을 기르는데서도 종자가 기본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이어 고기가공장 랭동고에 들리시여 닭고기가 얼마나 있는가도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사리원시에서 자체의 힘으로 닭공장을 개건하고 닭고기와 알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인민들이 닭고기와 알을 공급받고 다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였다.

공장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대적설비들로 번듯하게 개건된 공장을 다시한번 둘러보시며 사리원닭공장은 위치도 좋고 깨끗하며 건물들도 잘 지었다고, 수고를 많이 하였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격정에 넘쳐있는 공장의 일군들에게 사리원닭공장을 더 잘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공장을 떠나시기 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리원닭공장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합!》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고기와 알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수령님과 당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못 잊을 그날의 가슴뜨거운 당부는 오늘도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만이 아닌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본사기자 김 일 권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크나큰 긍지와 보람

주체87(1998)년 1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쁨이란 인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라도 좋은 일을 해놓는데 있는것이지 남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기쁨은 언제나 인민들의 행복속에 있다고,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살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설레였다.

그이께서는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가 지금 태일과 같이 군대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것도 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나는 현지지도로 날과 날을 보내기때문에 어느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자보지 못하였다. 내가 잠을 자는것은 현지지도길의 자동차안에서 잠간 눈을 붙이는것뿐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여 오히려 침대에서 자는것이 불편해보인다. 나에게는 자동차안에서 조금 자는것이 제일 단잠이고 쉬는 때이며 그것이 휴식의 전부이다. …

끓어오르는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일군들을 잠시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나는 이런것을 고생으로 생각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기에서 커다란 긍지와 보람을 느끼군 한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끼니를 번져가며 일하다가도 인민들이 잘살게 되였다는 말을 들으면 피곤도 한시에 사라지고 힘이 솟는다. 일군들이 십지나를 기쁘게 하려면 인민을 위하여 한가지라도 좋은 일을 해놓아야 한다.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바쳐가신 우리 장군님,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한없이 위대한분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심장깊이 새기였다.

몸소 지어주신 신발이름

주체99(2010)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신발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현장을 돌아보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솜신발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신발을 손에 드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그이께서는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께 신발이 손색없이 만들어진데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이 공장에서 인민들을 위하여 훌륭한것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어울리게 이름도 잘 붙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광강도의 특산품인것만큼 신발이름을 광강도솜장화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광강도솜장화, 정말 멋진 이름이였다. 일군들은 모두가 환성을 터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복리에 이바지하는 이런 공장을 돌아볼 때 제일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멋있는 광강도솜장화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은 인민을 위해 더 잘 복무해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일군들의 가슴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고 철 명

통이 큰 작전, 빛나는 실천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절한 소원이였다. 그 불타는 소원을 안으시고 인민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걷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주체97(2008)년 12월 어느날 사리원닭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닭고기가공장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자동흐름식으로 된 가공공정들에서는 닭들이 쉬임없이 가공되여나오고있었다. 일군들은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없이 만족해하시리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곳의 생산능력에 대해 보고받으시고 가공된 닭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차츰 안색을 흐리시며 가공하는 닭들이 작다고 조용히 되이시였다.

한 일군이 먹이단위에 관계되는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기준먹이단위와 이 공장의 먹이단위가 얼마인가를 물으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닭의 종자와 종자알보장정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닭공장의 닭먹이단위가 다른 단위의 닭공장보다 높은것은 공장에서 좋은 품종의 닭을 기르지 못하고있는것과도 관련되여있는것 같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돼지나 물고기의 생산성을 높이는데서 종자가 기본인것처럼 닭을 기르는데서도 종자가 기본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이어 고기가공장 랭동고에 들리시여 닭고기가 얼마나 있는가도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사리원시에서 자체의 힘으로 닭공장을 개건하고 닭고기와 알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는것은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제3선광장이 일떠선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 거창한 창조물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가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과감히 돌진해나가야 합니다.》

수십년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단천지구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 건설로 말하면 단천지구를 세계적인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로 꾸리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광산들의 채굴장을 확장하고 단천제련소를 건설하는것과 함께 해발 1200m의 높은 곳에 수만㎥의 건물을 짓고 수천대의 선광설비를 들여앉혀야 하는 아름찬 공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단천지구건설이 방대하고 어렵다고, 그러나 얼마든지 제낄수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가들은 언제나 투쟁목표를 높이 세워놓고 벼락같이 담새겨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천지구에서 일대 돌격전을 벌려며 검덕의 제3선광장에 총공격을 들이대자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담대한 배짱과 열정은 일군의 가슴속에서 크나큰 힘과 용기가 솟구쳐오르게 하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능한 일군들로 선광장건설과 선광설비제작을 맡아보는 강력한 지휘부를 꾸려주시고 속도전청년돌격대를 비롯한 건설력량을 새로 편성하여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선광장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중앙과 지방의 우수한 경제선동대들과 예술인들을 검덕에 집중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도적인 범위에서 벌어지던 단천지구건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단 며칠사이에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떨쳐나선 대건설전투로 전환되였으며 특히 선광장건설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통이 큰 작전과 전개력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일군들은 그이께서 지니신 결단성과 무비의 담력에 시종 놀라움과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온 나라를 총공격전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존방식과 공법에만 매달리여 속도를 보장하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에게 단계별로 배려하였던 공사순위를 지체없이 립체적으로 재편성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립체전의 방침을 관철하자면 당의 지도밑에 창조된 김일성경기장건설경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일군들은 막혔던 물목이 터지는것처럼 눈앞이 확 트이였다.

실로 제3선광장건설에서 립체전을 벌려나갈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낡은 방법을 대담하게 버리고 건물의 기초속성과 축조, 설비의 조립 등을 거의 동시에 밀고나감으로써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게 한 기적의 원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렇듯 세심하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건설장은 립체전, 속도전의 불바람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으며 드디여 완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였다.

완공된 제3선광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선광장전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제3선광장을 한해동안에 건설한것은 기적이라고, 세계건설력사에 이런 큰 선광장을 한해동안에 건설한 력사는 아직 없다고 하시면서 이는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위대한 창조물이라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정녕 로동당시대를 창조와 변혁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탁월한 령도밑에 이 땅에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이 솟아올라 숲을 이루었다.

본사기자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내여가리

유훈관철전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량강도안의 당조직들에서

량강도안의 당조직들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 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사상과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도당위원회 일군들은 도안의 당조직들이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집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집행을 위한 작전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단위별로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고있으며 총화사업도 실속있게 따라세우고있다.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주별, 월별, 분기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유훈을 한조항한조항 모가 나게 집행하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일군협의회를 자주 조직하면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 조직부 책임지도원들이 담당단위의 유훈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게 하는 한편 그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바로세워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장이상 일군들을 령도업적단위들에 내려보내여 실태를 료해하고 그 정형을 모임때마다 일군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제때에 집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게 벌리고있다.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강력한 선전선동력량을 못고 혜산시, 삼지연군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곳에 나가 집중적인 경제선동활동을 진행하여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고있다. 그뿐아니라 삼지연군꾸리기건설장을 비롯한 주요전투장들에서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의 선동경연을 조직진행하고 집중강연선전대,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의 활동을 비상히 강화하여 유훈관철전에 떨쳐나선 대중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다.

김형직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당조직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서 일군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이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최상의 수준에서 집행해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이 과정에 군에서는 올해 하반년에만도 수십동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후창식료공장과 온덕원, 국수집을 개건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김정숙군당위원회에서도 사상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온 군에 유훈관철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기동예술선동대와 녀맹예술선동대를 비롯한 군안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내밀어 선전선동의 실효를 높여나가고있다. 또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사업을 짜고들어 대중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워가고있다.

이밖에도 도안의 많은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에 고무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충정심을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허 일 무

천필마다에 간절한 그리움을 담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온 나라 강산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12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울리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은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준다.

인민생활향상을 필생의 념원으로 간직하시고 위대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문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입니다.》

9년전 7월, 찌는듯 한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로력영웅들과 새 세대 로력혁신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발휘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새 세대 로력혁신자들가운데 한사람당 4대 맡아보게 되여있는 직기를 21대 맡아보면서 벌써 2년분생산계획을 수행한 동무들도 있고 다추다기대공으로서 해마다 년간계획을 4월에 끝내는 동무들도 있다는데 대단하다고 하시며 그들을 몸가까이 불러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감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고, 공장의 모든 로동자들은 자기가 입을 옷감을 짜는 심정으로 천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을 공장종업원들은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고있다.

9년전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는 영광을 지니였던 리명순동무를 비롯한 그날의 새 세대 혁신자들이 오늘도 3년분계획을 남면서 수행하며 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방직공들이라고 온 공장 종업원들이 부러워하는 이들은 오늘도 자기 정량의 두배나 되는 직기를 맡아보며 천필을 쏟아내고있다.

4년분계획완수를 눈앞에 두고 전진속도를 높여가고있는 혁신자대오속에는 방적종합직장 조방공 김주경동무도 있다.

공장에 입직하여 기대를 잡은지 불과 4년, 아직은 조방기의 속내를 잘 알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는 피타는 노력으로 고급기능공들 못지않게 기능수준을 올리고 공장적으로 제일먼저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로력혁신자로 자라났다.

얼마전 한명희, 신은별, 리정화, 리은정동무들이 4년분계획을 완수한 소식은 12월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속에 다기대를 맡아보는 혁신자들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그들속에는 가정의 행복도 기쁨도 더 많은 천을 짜는데서 찾으며 집단의 사랑을 받고있는 부부혁신자들도 있고 늘 기대곁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직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는 수리공들도 있다.

3년분, 4년분고지점령을 향하여 내달리고있는 이름있는 혁신자들의 뒤를 이어 신입기대공들도 다기대운동에 뛰여들어 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리고있다. 교대당 많은 천을 짜자면 실잇는 시간부터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손놀림을 그려보고 작업의 얼참에도 손에서 실토리를 놓을줄 모르는 이들의 가슴속에 끓고있는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꽃피워갈 불같은 자각이고 열정이리라.

그리움에 불타는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12월의 하늘가에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 것이다.

그 동음은 수십년세월 위대한 수령님들과 맺은 정피줄처럼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은 천생산실적으로 변함없이 받들어나갈 충정으로 불타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의 박동소리인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 철 옥
사진 본사기자 최 충 성

나라의 보배, 그 믿음 심장에 안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돌파전의 개척자, 기수들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에 서있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올해 9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공사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받아안는 영예를 지닌 과학자들속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로보트조종공학강좌의 교원, 연구사들도 있다.

이곳 교원, 연구사들이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새로 일떠서는 산소열법용광로의 통합자동화체계를 개발할 연구과제를 맡아안고 현지로 달려나간것은 지난해 4월이였다.

지난 시기 공장, 기업소들의 통합자동화체계개발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이들이였지만 새로운 연구대상인 산소열법용광로와 대형산소분리기는 규모와 특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연구해본 대상들에 비할수 없이 크고 생소한것이였다. 더우기 과학자들의 사소한 실수도 만회할수 없는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연구과제는 무조건 단번성공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그러자면 통합자동화체계의 구조설계와 통합자동화장치체계구성, 프로그람개발 등 모든 요소에서 과학성과 정확성이 철저히 담보되여야 하였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수만행에 달하는 방대한 프로그람작성에서 지그마한 실수도 없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연구집단의 모든 성원들은 단번성공을 향한 한단계한단계의 결심채택과 한행한행의 프로그람작성을 위해, 콤퓨터모의에 의한 자동화체계의 안전성과 효과성확증을 위하여 피타게 탐구하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이렇게 몇달동안에 걸치는 연구과정에는 너무도 힘에 겹고 지쳐서 쓰러질적도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때마다 연구집단은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현대화, CNC화의 목표를 제시해주시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래양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새 세기 산업혁명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도 온 나라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시는 과정에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이룩한 성과라면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높이 치하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주체100(2011)년 4월 어느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연구집단의 한 과학자의 설명도 몸소 들어주시고 정말 큰일을 하였다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공업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나라의 보배들이라고 최상최대의 평가와 믿음을 안겨주신 어버이장군님.

첨단돌파전의 앞장에 서있는 과학자들의 수고를 값높이 헤아려주시며 한생토록 잊지 못할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진정 연구집단의 모든 성원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힘과 열정을 안겨준 기적창조의 원천이였다.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을 나라의 보배로, 첨단돌파전의 기수로 내세워주신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연구집단의 성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며 우리식의 탐구전, 창조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키어이 꽃피울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워온 나날에 연구집단은 산소열법용광로 콤퓨터조종체계와 생산관리체계, 대형산소분리기 콤퓨터조종체계와 산소분리기계통전반에 대한 종합감시조작체계 등으로 산소열법용광로의 운영에 필요한 통합자동화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우리 식으로 개발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질좋은 강재를 생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진공정련로의 운영에 필요한 콤퓨터조종체계를 우리 식으로 개발완성하여 강질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오늘도 이곳 과학자들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크나큰 로고를 바쳐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애국충정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감 철 웅

수 필

한그루 사과나무를 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도 장군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것만 같고 자애로운 모습을 계속 뵈옵는것만 같습니다.》

찬바람부는 12월이다. 잎이 진 길가의 나무들이 바람결에 실레이는 모습은 문득 나의 눈앞에 지난 여름 온천과수농장에서 본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떠올렸다.

갖가지 과일향기가 차넘치는 과수원 전망대옆에 유별나게 눈에 띄는 무성한 사과나무 한그루가 있었다. 한아름이 넘는 나무밑둥이며 한창 익어가는 사과알들이 목직하게 매달린 모습이 참으로 장관인 그 나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50여년전에 몸소 보아주신 나무였다. 그때 불과 10년생이였던 나무가 지금은 예순돌기를 넘겼다는것이였다.

《지난해에 이 사과나무에서 870여알의 사과를 땄습니다.》

그곳 작업반장이 자랑스럽게 하는 말에 나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대체로 그 품종의 사과나무는 심어서 30년이상 지나면 수확고가 떨어지기때문에 그루바꿈을 해주는데 60년나마 자란 나무에서 그만한 수확을 내였다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올해 가을에는 그 나무에서 사과를 얼마나 땄을가.

이런 생각이 갈마든 나는 농장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알아보았다.

《올해 가을에는 1 600알도 넘게 땄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울려오는 대답에 나는 그만 귀를 의심하였다.

다음순간 그 사과나무앞에 세운 표식비가 우뚯이 안겨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체취가 풍겨오는것만 같은 사과나무에 온갖 정성을 쏟아붓는다고 하던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목소리도 되새겨졌다. 그 정성은 해마다 더욱 뜨거워져 올해에는 지난해 수확고의 두배에 달하는 믿기 어려운 다수확을 이룩한것이였다.

1 600여알의 사과!

정녕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농장원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과 그리움이 그대로 밑거름이 되고 영양소가 되여 안아올린 기적의 열매였다.

우리 장군님 생각으로 불시에 눈굽이 젖어들고 가슴이 찌릿해지는 그런 열매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올해 가을 사리원시의 미곡법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알알이 가꾼 충정의 이삭들이 땅이 꺼지도록 물결치였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며 철령아래 사과바다에도 그와 같은 그리움의 열매들이 주렁지였다. 황철의 용해공들이 끓이는 주철쇠물에도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슴배여있었다.

그리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만지는 절절한 그리움속에 온 나라 인민 누구나 이야기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곁을 떠나지 않으시였다고, 그이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애로운 그 영상을 언제나 뵈옵는것만 같다고.

나의 마음도 다를바 없다. 천리방선 전호가로 향한 길을 달리느라면 그이의 야전차발동소리가 앞에서 울리는것만 같고 자강땅의 어느 한 기계공장에 가면 정든 교장의 로동계급에게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던 그이의 모습을 뵈올것만 같다.

크지 않은 과수농장의 한 사과나무앞에도 수십년전에 새기신 그이의 발자취가 어려있듯이 이 땅 그 어디 가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집, 다녀가신 공장, 다녀가신 학교라는 불면의 글발이 빛나고 그이의 정깊은 손길이 닿아있지 않던가. 가는 곳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랑과 행복의 전설로 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가는 충직한 아들딸들을 만나게 되는것 아니던가.

12월의 찬바람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불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 그 깊고도 열화같은 정을 식힐수도, 털끝만치 덜어낼수도 없거니.

무성하던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들만이 찬바람에 시달리는 겨울에도 또다시 넘쳐날 사과꽃향기, 한껏 무르익을 사과알들을 그려보며 사과나무밑의 언땅에 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간다는 온천과수농장 농장원들의 이야기 왜 이다지도 가슴울리는가.

이 한해의 날과 달도 우리 인민은 어버이장군님과 함께 살아왔으며 다음해도 또 그 다음해도 위대한 그이와 함께 부강조국건설력사의 년륜을 틀기틀기 새겨갈것이다.

나의 눈앞에 사연깊은 한그루 사과나무가 보인다.

변함없는 그리움의 꽃을 피울 새봄의 사과나무, 그리움의 열매가 주렁질 풍요한 가을의 그 사과나무가.

본사기자 허 명 숙

언제나 영광의 그날에 살며

대안전기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대안전기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뜨겁게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온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뜻깊은 올해에도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7월말 공장앞에 수만kVA능력의 대형변압기를 비롯한 여러 대상설비를 시급히 생산할데 대한 과업이 나섰을 때였다.

자재를 비롯하여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 대상설비생산과제를 수행한다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한 때 협의회에서 울려나온 초급당일군의 호소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 새겨진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시다.》

영광의 일터! 그것은 대안전기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부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친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어찌 잊을수 있으랴.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를 세워주시기 위해 여러차례나 공장을 찾으시여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을.

영광의 일터, 그 부름을 심장속에 더욱 깊이 간직한 대안전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고 기술자들은 새로 생산하는 대형변압기에 종전에 리용하던 관식랭각장치대신 많은 자재를 절약할수 있게 공장에서 개발한 주름관식랭각장치를 성과적으로 도입해나갔다.

공장에 일어번진 대상설비생산의 불바람은 참으로 뜨거웠다.

전동기조립직장의 종업원들이 어느 한 전동기생산을 끝내였을 때였다.

그날 앞으로의 대상설비생산전투를 위해 공장의 일군들이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라고 전동기조립직장 종업원들의 등을 집으로 떠밀었지만 그들은 춤추듯 일터를 떠날줄 몰랐다.

《전세대들처럼 살며 일하고 경의다진 우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직장에서 일하고있는 작업반장 장영일동무의 말이였다.

그 말속에는 공장에 안겨주신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심장에 간직하고 대를 이어 영광의 일터를 빛내여가려는 순결한 마음이 깃들어있는것이 아니랴.

전동기조립직장 종업원들만이 아니였다. 교대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부분품생산과 조립속도를 높여나간 4.27희물프레스직장과 전선직장의 로동자들도, 뜻하지 않게 접쳐드는 난관속에서 일정계획을 드팀없이 밀고나간 회전기권선직장과 제관직장의 종업원들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을 심장에 간직하고 혁신의 한길을 달리였다.

이런 드높은 열정이 안아온 대상설비생산성과였다.

12월에 들어와 대안전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중요대상전설장에 보내줄 대형변압기생산전투에 또다시 진입하였다.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가는 그들의 심장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그이의 숭고한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영광의 일터를 빛내여갈 오직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대안전기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열정에 떠받들려 지금도 공장에는 생산의 동음이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신 현 규

숭고한 념원 현실로 꽃피워간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잊을수 없는 12월이 시작된 이른새벽,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져있는 모자이크벽화앞으로 모여들었다.

풍년든 벌을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는 그들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있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는 여러차례나 농장을 찾으시고 농사문제를 의논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위대한 장군님, 우리 오국리사람들은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념원하신 알곡 정보당 10t의 풍년가을을 다음해에도 키어이 펼쳐놓으렵니다. 쌀로써 당을 받들렵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령도업적단위답게 다수확운동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 열의가 차넘치고있었다.

농장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의 농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다음해농사작전을 빈틈없이 하였다. 이들은 예견되는 날씨조건과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다음해에 앞선 재배방법 도입면적을 더 늘일 목표밑에 모든 작업반에서 지력을 높이는데 힘을 넣도록 하였다.

이 작전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농장일군들은 낟알털기를 끝내는 길로 농사차비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농장원들은 매일 거름생산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였다. 하지만 만족을 몰랐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할 불타는 열의안고 떨쳐나선 제4작업반원들이 혁신의 앞장에 섰다. 이들은 정보당 알곡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를 유기질비료생산에서 찾고 진거름이며 생물활성퇴비를 산더미처럼 쌓아나갔다. 작업반원모두가 질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한데 이어 거름실어내기전투에서도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자연은 이들의 의지를 시험하기라도 하듯 더욱 기승을 부렸다. 몰아치는 바람과 맵찬 추위…

하지만 작업반원들은 쌀로써 우리 당을 받들어갈 굳은 맹세로 가슴을 불태우며 자연의 광란을 맞받아나갔다. 그리하여 이들은 거름실어내기를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런 전투적인 일본새가 어찌 이 작업반원들속에서만 발휘된것이랴.

흙보산비료생산을 질적으로 하고있는 제2작업반원들, 중소농기구준비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제16작업반원들…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댔다. 그 어느 작업반에 가보아도 흙보산비료와 생물활성퇴비생산, 산성토양과 랭습지개량, 모판자재준비 등 다음해농사차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실적을 올리였다. 이뿐만이 아니였다.

어버이장군님의 간곡한 유훈과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농장원들은 다음해에도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해 과학농사의 기수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쌀로써 당을 받들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다음해에 더 큰 알곡생산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12월의 하루하루를 값높이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전 명 일

열렬한 조국애를 안고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힘차게 다그쳐온 한해

올해 산림복구전투에서의 성과와 교훈을 놓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나게 경축한 뜻깊은 올해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도 전진을 이룩한 자랑찬 한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올해 전국각지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산림복구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이 나날 양묘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는 한층 강화되고 나무모생산과 심기, 림농복합경영방법도입, 산림보호 등 산림복구전투전반에서는 혁신적인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였다.

나무모증산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

나무모를 키우는것은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이며 산림복구전투의 성과는 양묘장들에서 나무모생산을 어떻게 따라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올해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앞장에 섰다. 이들은 시대정신의 창조자들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박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현대적인 도양묘장을 훌륭하게 일떠세웠다. 또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그에 의지하여 양묘장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감으로써 나무모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다져놓았다.

강원도의 뒤를 이어 자강도와 평안북도, 평안남도와 황해북도를 비롯한 다른 도들에서도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실현에 이바지할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의 양묘장을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다.

나무를 많이 심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의 일군들과 전실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각종 규격의 수지경판과 나무모용기, 해가림발을 비롯한 산림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산림기자재공장을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또한 중앙양묘장에 나무모전시장과 야외적응구, 박피우기온실, 통합생산조종실 등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전개하여 좋은 결실을 안아왔다.

시, 군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체양묘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나무모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였다.

문덕군이 이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산림복구전투 1단계 총화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군에서는 올해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모체양묘장의 현대화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미학성과 실용성이 보장된 수지경관온실을 새로 번듯하게 건설하고 야외적응구에는 관수대차를 제작설치하는 등 모체양묘장의 물질기술적조건을 보다 훌륭히 갖추어나갔다. 그리하여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장연군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심리있는 무동력양수기를 창안제작하여 모체양묘장의 관수체계를 원만히 세우고 평화집적과 산화린회석을 동시에 생산할수 있는 능률적인 공정을 새롭게 꾸려 나무모증산투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였다.

송화군산림경영소에서는 축산기지에서 나오는 거름원천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량의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나무모밭의 지력을 부쩍 높이였다. 그리고 종자선별기, 두북짓는기계 등을 창안제작하여 양묘작업의 기계화수준도 부단히 높여나갔다. 또한 연재를 가지고 만든 효능높은 성장촉진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지난해의 1.5배가 넘는 나무모를 생산하였다.

세포군과 리원군, 태천군, 증산군, 정평군, 연탄군, 전천군을 비롯한 각지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양묘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놓고 나무모생산을 지난해보다 훨씬 늘이였다.

올해에도 나무모생산은 제한된 전문단위들의 범위를 벗어나 전군중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였다. 희천시와 만포시를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무모를 제살점처럼 여기고 품을 들여가며 정성껏 키웠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그루라도 더 심고 가꾸기 위해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헌신성에 떠받들려 지난해보다 수천만그루의 나무모가 더 생산되여 뜻깊은 올해의 산림복구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높은 사름률보장, 늘어나는 푸른 숲

당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올해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나무심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식수절 하루동안에만도 백수십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앙양된 기세를 고조시키며 련속공격전으로 나무심기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름률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올해의 나무심기에서 높은 실적을 내였다. 특히 이들은 산이 많은 자강도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야 잘살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제림과 보호림, 풍치림을 합리적으로 조성하면서 혼성림조성방법과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였다. 적기를 바로 정하고 력량을 집중한 결과 도적인 나무심기과제는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날수 있었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집단적경쟁열풍이 일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해지는 속에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에서도 계획보다 많은 면적에 나무를 집적으로 심어 높은 사름률을 보장하였다.

심은 나무에 대한 비배관리에서도 혁신이 일어났다.

라선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숭고한 애국의 마음안고 애써 심은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를 품을 들여가며 가꾸었다. 시의 책임일군들은 시기별비배관리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앞장에서 헌신하면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또한 단위별작업진행정형을 현장에서 실속있게 총화평가하고 부족점은 제때에 퇴치하도록 하였다.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심은 나무에 대한 김매기와 풀베기, 영양액 및 유기질비료주기 등 해당 시기에 따르는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나무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강동군에서는 고온과 가물현상이 지속되는 불리한 조건에 맞게 물보장을 특별히 중시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품들여 심은 나무들이 자그마한 피해도 받지 않고 잘 자랄수 있게 하였다.

평안남도에서는 심은 나무는 나무를 심은 단위들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담당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산림감독원들과 산림응만원들이 높은 책임감을 안고 새로 심은 나무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해나가도록 하였다.

올해 각지의 산림복구전투장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가며 한그루한그루를 높은 사름률을 보장할수 있게 정성껏 심어가꾸었다. 그리하여 산림조성면적을 지난해보다 수만정보나 더 늘일수 있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림농복합경영방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있는 단위들의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진행되여 산림토지의 립체적, 집약적리용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산림복구전투를 추동한 과학기술성과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도들에 있는 산림과학연구소도 잘 꾸림에 대하여 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 황해북도와 자강도, 량강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등 각지에서는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이 크게 전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산림과학연구기관들에서 이룩한 가치있는 산림과학기술성과들은 올해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추동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연구원이 한몫 단단히 하였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함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이곳 정제림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많은 면적의 수유나무림을 우량품종림으로 개조하였다. 뿐만아니라 눈접에 의한 방법으로 새 품종의 잣나무림조성면적을 지난해보다 3배나 늘이고 자체의 힘으로 천연나무모영양활성제를 대량생산보장할수 있는 기지를 꾸려놓았다. 또한 100만그루이상의 맛이 좋으면서도 정보당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밤나무모생산에 필요한 준비를 결속하였다. 그리고 외무성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삼지연군 리명수지구에서의 새 품종 비타민나무림조성과 정제적가치가 큰 좋은 수종의 나무를 널리 퍼치기 위한 사업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갔다.

줄기찬 탐구전, 창조전을 벌려온 연구사들은 삽목에 의한 방법으로 새 품종 잣나무모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결과 접방법에 비하여 새 품종 잣나무의 모생산과 열매생산주기를 절반정도 단축할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

산림기계연구소에서도 휴대용동력분무기, 비행분무기, 큰나무줄기약물주입기, 새형의 전기식살충기를 비롯한 새로운 기계들을 만들어 산림병충해를 미리막을수 있게 하였다.

강원도산림과학연구소에서는 자기 지방의 흔한 원료로 살충효과를 높이고 나무의 영양상태를 개선할수 있는 농약과 물기흡수보존 및 성장촉진제들을 개발도입하는 등 도의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함경남도산림과학연구소에서는 나무의 사름률과 초기생장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많은 량의 외생균뿌리균제를 생산보장하여 도의 산림복구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사회적인 관심속에 보호되는 산림자원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올해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산림보호이자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이고 경제보호사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나라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전국적인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가 올해에도 큰 은을 내였다.

산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투쟁도 각지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건설건재, 석탄공업, 철도운수, 화학공업, 농업부문에서도 목재소비를 극력 줄일수 있는 혁신적인 방도를 찾아 실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정소마그네사를 가지고 벽부재, 합판, 천정판, 지붕판, 휘틀 등의 건재품을 대량생산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준 단천지구광업총국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목재를 절약하고 그 소비량을 줄인것은 산림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해산시에서는 년간 수백만장의 생산능력을 갖춘 연소청가제에 의한 구멍탄생산기지를 꾸려놓았다.

룡천시와 법동군, 김화군을 비롯한 강원도안의 여러 지역에서도 구멍탄연소기술공정을 확립하고 초무연탄활성연소청가제를 개발하여 산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수 있게 하였다.

평성시산림경영소와 어랑군광정사업소, 홍원군 음협봉농장, 자성군 관평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메탄가스화를 실현하여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생활로 증명하였다.

* *

뜻깊은 올해에 산림복구전투에서는 이렇듯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된 반면에 결함들도 나타났다.

상반년기간만 놓고보아도 일부 단위들에서는 조건타령만 앞세우면서 양묘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

묵산군에서는 산림복구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났지만 나무모생산기지 하나 똑똑히 꾸려놓지 않았다. 군산림경영소에서는 지난해에 건설한 모체양묘장의 방들을 창고로 리용하는 형편이였다.

풍강군에서는 모체양묘장의 나무모밭면적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바람막이숲과 관수체계도 변변치 않아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녕원군과 신원군에서 올해의 산림복구전투를 매우 소극적으로 하였다.

녕원군에서는 용지구주변의 산에서 한창 자라고있는 애어린 나무들을 뽑아버리고 다른 식물을 심는 현상까지 나타났으며 신원군에서는 심은 나무에 대한 가꾸기를 무책임하게 하였다.

이 단위들만이 아닌 온성군, 중강군, 의주군에서도 올해의 봄철나무심기계획을 미달하였으며 운흥군에서는 일부 지역의 산에 나무가 아닌 다른 식물을 심는 편향이 나타났다.

오늘의 산림복구전투는 단순히 산에 나무를 심는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자연원료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다.

우리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숭고한 조국애를 안고 뜻깊은 올해의 산림복구전투에서 거둔 성과를 새로운 비약의 도약대로 삼고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

글 본사기자 김성일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몽골 대외관계상사이의 회담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으로 몽골을 방문하고있는 외무상 리용호동지와 드. 초그트바따르 몽골 대외관계상사이의 회담이 8일 대외관계성 청사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과 몽골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올해에 두 나라사이의 교류와 협조가 여러 분야에서 활력있게 진행된데 대해 평가하고 쌍무관계발전과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성원들,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몽골 수상대외정책고문, 주조 몽골특명전권대사, 대외관계성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울란바따르에 도착

외무상 리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기 위하여 8일 울란바따르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몽골대외관계성 성원들과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이날 대표단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을 출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어랑천발전소건설 힘있게 지원

함경북도에서

어랑천발전소건설을 다음해 10월 10일까지 다그쳐 끝낼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발전소건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지난 7월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자들이 국가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누가 알아주건 말건 순결한 량심을 묻으며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였다고, 당정책관철을 위해 위훈의 구슬땀을 바쳐온 건설자들의 고결한 충정과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 발전소언제가 쌓아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가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안고 어랑천발전소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하고있다.

천막과 착암기를 비롯하여 필요한 자재와 설비, 후방물자를 가지고 건설장을 찾은 도일군들은 건설자들과 일도 하면서 그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도금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보내주어 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김책대경수산종합기업소와 도수산관리국, 청진중앙동물원사료보장수산사업소에서도 지원사업을 잘하여 건설자들을 위훈창조에로 고무해주고있다.

시, 군, 구역들에서도 발전소건설을 성의껏 지원하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내부에 비를 탐구동원하는 방법으로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주고있다.

도예술단, 도예술선전대를 비롯한 예술단체들과 도안의 시,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예술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본보기학교건설을 다그친다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본보기학교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부문에서는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중등일반교육을 비롯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모를 박고 학교꾸리기지휘부일군들의 사업정형을 주마다 료해한데 기초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게 하고있다. 또한 도안의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교건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순천시와 평성시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본보기학교건축공사를 남먼저 끝낸 기세로 다기능화된 교실들을 꾸리는데 힘을 넣고있다.

양덕군일군들은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학교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골조공사와 색철판기와의우기를 성과적으로 해제낀 건설자들은 내외부미장작업에서 일자리를 북북 내고있다.

문덕군일군들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인재로 키우는데 이바지할 일념안고 학교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이들은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철근, 목재를 비롯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건설자들은 골조공사를 끝낸 기세드높이 림제진의 방법으로 내부미장과 지붕공사를 해제끼고있다.

정원군에서 본보기학교를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 한편 후방사업으로 건설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숙천군일군들은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면서 학교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계속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회창군일군들은 연건평이 5천여㎡에 달하는 덩지큰 본보기학교건설을 완공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그들은 세멘트와 철근을 비롯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건설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안주시와 맹산군, 신양군의 일군들도 본보기학교건설을 적극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오철훈

금속재료의 주체화실현에 기여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질좋은 합금강들을 연구도입하여 금속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대야금공업의 발전추세에 맞게 선진기술에 의거하여 철강재생산의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며 합금강과 규격강재의 품종을 늘여야 합니다.》

연구소에서는 합금강생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소량다품종의 합금강들을 생산보장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소장 박사 김혁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짧은 기간에 중주파유도로 2기와 원격으로 조종할수 있는 천정기중기, 새로운 탈류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이와 함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휘하여 불가능하다고 하던 진공유도로개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연구소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하여 연구소에서는 합금강생산을 위한 시제품을 뽑아내는데 성공하게 되였으며 이에 토대하여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간 정밀합금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합금원소를 리용한 새로운 저합금내마모강들을 개발도입하여 기계설비들의 수명을 늘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주체철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나가 여러가지 질좋은 합금강을 생산할수 있는 각종 노즐을 우리 식으로 제작하고 그 생산공정을 확립하였다.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금속재료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우리 나라의 합금원소를 리용하여 불건기재들의 무분품제작에 적합한 미량합금강을 연구도입하였다. 이들은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 달려나가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생산한 선철에 의한 구상흑연주철생산공정확립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자동차와 뜨락또르생산에 적극 기여하였다.

단조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수도력갹운수국 뻐스수리공장의 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첨단수준의 랭간압출기술로 기관기통시제품을 제작함으로써 수도의 려객운수부문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경제건설의 주요전투장마다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나가고있는 흑색금속연구소 과학자들의 투쟁이 있기에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보다 큰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이다.

합금강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두뇌전, 실력전의 불길은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다른 부문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전력공업부문에 꾸려진 자립적동력기지들을 정비보강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해 어느 한 발전소의 설비본공장으로 달려나간 주조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수차날개의 수명을 훨씬 늘일수 있는 불수강재료를 개발하고 생산공정을 확립하였으며 그 성과를 여러 수력발전소에 확대도입하였다.

합금철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무정형합금띠생산에 필요한 고순도합금철을 제조할수 있는 공정을 새롭게 확립하였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중간시험장에 크롬과 니켈을 쓰지 않으면서도 기계적성질과 내해수성을 보장할수 있는 불수강생산공정을 확립한데 기초하여 새롭게 제작한 바다물제조용혼합기들을 여러 단위에 보내주어 인민들이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수심대의 밀폐형물가열기를 만들고 아연분말침투기술을 리용하여 전자변을 제작도입함으로써 보전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이뿐만아니라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탄광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착암기용정대를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공정을 세워줌으로써 석탄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 성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한해동안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온 흑색금속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지금 이들은 금속공업을 경제강국을 떠받드는 쌍기둥의 하나로 내세운 당의 숭고한 뜻을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들로 받들어나가기 위해 더 높은 연구목표들을 세우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박현

협동벌에 차넘치는 드높은 열의—《쌀로써 당을 받들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이 중요하다

연탄군일군들의 사업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성과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맡은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투철한 립장과 사상적각오를 안고 심장을 불태우며 높은 목표점령을 위해 분발해나갈 때 자기 단위 농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쌀로써 당을 받들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다음해농사차비에서 도적으로 앞서나가고있는 연탄군의 농장들을 돌아보면 이곳 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일판을 전개하고있는가를 알수 있다.

군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면적의 논밭가을갈이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놓고보자.

올해농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 군일군들은 한가지 문제를 포착하였다. 그것은 옹, 철릉, 송죽협동농장들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인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지난해에 많은 면적의 가을갈이를 진행한데 있다는 사실이였다.

가을갈이를 하게 되면 땅이 겨울철에 얼었다가 봄에 녹으면서 푸실푸실해지고 물과 공기가 알맞게 스며들어 농작물이 잘 자랄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갈이바닥층밑에 있는 영양물질들을 농작물이 흡수하게 하자면 당의 뜻대로 가을갈이를 질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하였다.

군일군들은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 과정에 무슨 일에서나 성과어부는 일군들의 사상관점, 사업태도에 달려있다는것을 다시금 새기게 되였다.

사실 알곡생산에서 앞장선 농장들이라고 하여 다른 단위보다 로력이 많고 영농자재가 넉넉한것은 아니였다. 농장일군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두발을 뻗치고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립장에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앞질러가며 세운데 있었던것이였다.

관점에 따라 일본새가 달라지는 법이다.

교훈을 찾은 군일군들은 지난해보다 가을갈이면적을 1.5배이상 늘일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가을갈이전투는 곧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의 도수를 더욱 높이였다. 또한 알선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것은 농장일군모두를 각성시켰다. 그들이 당의 뜻대로 새벽문을 남면서 열고 현장을 밟아보면서 실태를 환히 꿰들며 작전을 치밀하게 하고 전투전지도 먼저 차지하니 그다음의 일은 저절로 풀려나갔다.

농장들에서 연유질약기를 설치하고 공기청정기를 개조하는 등 뜨락또르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가을갈이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다.

군에서 부림소영양관리에 힘을 넣은것도 가을갈이속도를 높일수 있은 중요한 비결의 하나였다. 여기서 잘한것은 농장일군들이 부림소를 몇마리씩 맡아 영양관리를 책임지도록 한것이다. 소의 영양상태이자 곧 갈이실적이기때문이였다.

집체적인 토의를 거쳐 전투계획이 확정된 다음에는 분담조직을 정확히 하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여 성과를 거두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명심한 군일군들은 농장들에 수시로 내려가 부림소의 영양상태를 놓고 총화와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이것이 온을 냈다. 농장일군들이 여러가지 영양가높은 먹이로 맡은 부림소영양관리에 품을 넣자 이것은 그대로 가을갈이실적으로 이어졌다. 결과 지난해보다 많은 면적의 논밭가을갈이를 성과적으로 할수 있었다.

생물활성퇴비를 비롯한 유기질비료생산을 한말이상 앞당긴 사실을 더 보자.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자면 땅이 얼기 전에 실적을 높여야 한다. 그것은 낟알짚을 비롯한 유기질비료원료를 무저놓고 빨리 썩일수록 그 질을 높일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러자면 낟알짚을 잘게 절단하여야 하였다. 하지만 지난 시기처럼 낫이나 작두로 절단하는 식으로는 그 속도를 보장할수 없었다.

방도는 무엇인가. 군당책임일군은 낟알짚을 절단할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리용하면 유기질비료생산속도를 훨씬 높일수 있다는 안을 내놓았다.

혁신적인 방도였다. 군일군들은 농기계생산에 주되는 힘을 넣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의도를 다시금 되새겨보며 즉시 해당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군적으로 절단기제작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결과 수십대의 절단기가 제작되여 낟알짚에 의한 유기질비료생산을 짧은 기간에 결속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지금 군에서는 고온과 가물에 대처할수 있게 지역별, 필지별로 많은 굴로와 우물을 파고 물길가시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는 등 물확보를 위한 공사를 다그치고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공사를 군자체의 힘으로 해나가고있는것도, 작업반들에서 발동발전기를 리용하는 양수기를 한대씩 구비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거름생산을 비롯한 다음해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것도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자기 군의 농사는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열백밤을 새서라도 풍요한 가을을 이 땅우에 기어이 펼쳐놓기 위해 뛰고 또 뛰는 군일군들의 일본새에 있다.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에서 자기들이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심장으로 자각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지휘로 다음해의 다수확담보를 마련해나가고있는 군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는 좋은 결실을 안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영학

관점을 바로가지고 달라붙자

농업전선은 다음해에도 힘을 넣어야 할 기본전선이다. 다음해 알곡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데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모든 농장 일군들은 한해농사가 끝났다고 하여 랑개를 풀어놓을것이 아니라 올해농사의 경험과 교훈을 분석총화하고 더욱 분발하여 다음해농사대책안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일군들이 명심해야 할것은 농사차비에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달라붙는가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입니다.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일군들의 사상관점에 따라 한해농사성과가 좌우된다. 올해 농사결실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안악군 덕성협동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금강군 천리협동농장, 화대군 읍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다수확을 낸 농장일군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일하였는가.

다수확농장일군들은 하나같이 조건타발을 물리쳤다. 조건이 불리하였지만 쌀로써 당을 받드는 길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는 각오와 알곡증산이자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투쟁해왔다.

투철한 관점은 당의 농업정책은 과학이고 승리라는 신념과 다수확의 높은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방도를 찾아 무단히 사색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투쟁기풍을 낳았다.

결국 농사차비때부터 온 농장이 신심을 가지고 맹쳐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할 방도를 찾고 완강하게 내밀어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할수 있었다.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한 단위들의 실태를 놓고 찾게 되는 심각한 교훈이 있다. 그것은 농사일을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으로 대하면 땅탓, 하늘탓, 비료탓을 내들면서 패배주의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패배주의에 빠진 일군들의 모습이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는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

농장일군들은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수확고지로 가는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야 한다.

과학농사는 현시기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당정책적요구이다. 일군들은 불리한 자연기후조건도 과학농사의 위력으로 이겨낼 목표밑에 지금부터 영농공정에 따르는 농사대책안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자신들부터가 과학농사에 정통하고 선진영농방법과 재배기술을 도입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높은 실력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작업반별, 포전별지력상태와 품종별소출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종자선택으로부터 씨뿌리기, 모기르기, 비배관리를 비롯한 모든 영농공정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방도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 포로되여 주저앉을것이 아니라 가물견딜성이 높은 다수확품종을 많이 배치하고 로력절약, 물절약형의 선진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비료가 부족하면 자체로 대용비료를 만들어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개선하여야 한다.

모든 농장 일군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승고한 사명감을 안고 다음해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농사차비전투에서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물길가시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재령군 신환포협동농장에서

쌀로써 당을 받들 불타는 열의로 들끓고있는 재령군 신환포협동농장에 가면 지난해와 다른 점을 찾아볼수 있다. 일군들이 실정에 맞는 알곡증산의 방도를 찾고 능숙한 작전과 지휘로 다음해농사차비를 지난 시기보다 확고히 앞세우고있는것이다. 물길가시기를 중요항목으로 틀어쥐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종파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논농사가 기본인 이 농장의 물길은 그 길이가 연 10여km나 된다. 때문에 물길관리문제는 알곡생산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다음해농사차비작전을 하는 과정에 농장일군들은 지난해 이 사업에서의 부족점을 찾아보게 되였다. 그것은 물길가시기를 늦게 시작하다나니 인차 땅이 얼어 작업을 질적으로 못한것이였다. 물론 올해 봄에 물길가시기를 또 하였다. 하지만 농사철이 시작되고 여러가지 영농공정이 겹치다보니 로력이 긴장해져 작업의 질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할수 없었다. 결국 그 후과가 알곡생산에 미치게 되였다. 특히 가물이 한창일 때 멀리 있는 포전들에 물을 빨리 그리고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였던것이다.

일부 작업반에서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더 높이지 못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일군들의 가슴은 자책감으로 무거워졌다. 당에서는 우리 일군들이 사업에서의 결함을 객관적조건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그런데 자기들은 논농사는 물농사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물보장을 위한 주도세밀한 작전을 따라세우지 못한것이였다.

당의 뜻대로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대답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희의 일본새를 안받침할 때 풀지 못할 난관이란 없다.

찾은 교훈이 클수록 분발심은 더욱 커지는 법이다.

일군들은 물길을 구체적으로 돌아본데 기초하여 지난해보다 일찍 물길가시기에 달라붙어 짧은 기간에 높은 실적수준에서 완성할 목표를 세웠다. 포전에 나가 농장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혜를 합치니 그 수행방도도 찾게 되였다.

우선 이들은 농사결속을 그전보다 빨리 하면서 동시에 발효퇴비생산을 다그쳐 끝내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면 로력을 물길가시기에 집중시켜 땅이 얼기전에 능히 해제낄수 있었다.

드디어 물길가시기전투가 시작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작업반들을 맡고나가 앞채를 메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무엇보다 질보장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였다. 지난해의 교훈으로부터 이들은 작업반들에서 물길의 폭을 기술적요구대로 넓히면서 바닥을 깊숙이 파내고 방옆면을 든든히 다지도록 하였다.

물길을 이렇게 질적으로 정리하면 물흐름속도가 빨라진다. 농장에서 3단양수체계를 리용하는 조건에서 물흐름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같은 전력으로 그전보다 짧은 시간에 포전들에 물을 원만히 대줄수 있었다.

일군들은 물길가시기와 함께 흙짚이를 다같이 내밀도록 하였다.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되여있는 물길의 감탕을 파내면 수심정보의 포전에 흙짚이를 하여 지력을 높일수 있었던것이다. 그야말로 일거량득이였다.

다음해에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목표밑에 작업반들에서는 경쟁적으로 전투를 벌리였다. 결과 농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연 10여km구간에 대한 물길가시기를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성과가 오를수록 일군들은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다음해농사차비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작전하고 실천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모판자리만들기를 중시하고

홍원군 봉화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난 어느날 홍원군 봉화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포전들을 돌아보며 생각이 깊어졌다. 거름생산과 발효퇴비생산 등 다음해농사차비가 시작되였지만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는 올해농사에서 제기되였던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곰곰히 돌이켜보았다. 특히 봄철영농공정수행에 필요한 로력과 영농물자, 시간 등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았다. 그 과정에 봄철에 모판자리를 만드는데 적지 않은 품을 들이였다는 사실에 주목을 돌리였다.

바다가를 끼고있는 군의 실정에서 봄철이면 찬 해풍이 불어치군 하였다. 그것을 막느라 비람막이바자를 치기 위해 언땅을 파야 했고 모판자리가 녹도록 비닐막막, 나래씌우기를 하군 하였다. 그러자니 많은 품이 들었다.

보다 중요한것이 있었다. 땅이 얼기 전에 모판자리를 만들어놓으면 겨울철에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물스밈성과 공기통과성이 좋아진다는것이였다.

그는 면밀하게 타산해보았다. 잘 짜고들면 땅이 얼기 전에 모판자리만들기를 끝낼수 있었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작업반초급일군들이 머리를 기웃거렸다. 당면한 거름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자고 해도 힘에 부친다. 모판자리만들기는 다음해에 하는것이 좋겠다. …

이때 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당정책의 운명이 우리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 자각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면 못해낼 일이란 없습니다.》

관리위원장의 결심을 당조직에서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신심을 얻은 초급일군들은 모판자리만들기를 비롯한 다음해농사차비일정계획을 빈틈없이 세웠다.

일군들은 포전들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다음해농사차비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말보다 실천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일군들의 일본새에 고무되여 농장원모두가 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어느 작업반에서나 다음해 농사차비를 실속있게 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타올랐다. 결과 거름생산과 모판자리만들기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면밀한 타산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다음해농사차비를 실속있게 작전하고 전개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성군 박충 다음해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거름더미이자 쌀더미

문덕군 금계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땅을 기름지게 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이자면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합니다.》

문덕군 금계협동농장에 가면 매일 아침출근시간에 집에서 물거름을 넣은 바께쯔를 들고나가는 농장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정금옥관리위원장이 세워놓은 이 일과는 이제는 어길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질좋은 물거름은 농작물에 좋은 보약이나 같았다.

특히 물거름에 카리성분이 많은것으로 하여 모기르기에 리용하면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병견딜성도 높아지였다. 뿐만아니라 잎색이 진해지고 잎면적이 넓어져 빛합성도 잘되였다.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유기질비료를 만드는데 물거름을 리용하면 효과성이 높았다.

거름 한줌이 쌀 한줌이 될수 있게 질을 높이자. 이렇게 결심한 농장일군들은 옳은 방법론을 세우고 물거름확보사업을 진행하였다.

종전에는 물거름량을 위주로 따지면서 총화사업을 하였었다. 그러다보니 물거름의 량은 많아진 반면에 질이 높지 못하였다.

교훈을 찾은 일군들은 물거름량에만 치우친다면 질좋은 거름을 확보할수 없다는데 주의를 돌리였다.

일군들은 작업반마다 대용비료화보일지를 만들어놓고 매일 질좋은 물거름생산정형을 기록하고 정상적으로 총화하였다.

실례로 제2작업반장은 출퇴근거리가 멀어 불리하였지만 자신부터가 질좋은 물거름을 확보하는 사업에 앞장섰다. 초급일군의 말없는 호소에 모두가 따라나섰다.

결국 이 작업반은 모든 농사일에서 농장의 기준으로 되였다.

일군들은 이 작업반의 모범을 다른 작업반들에서 본받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은 물거름속의 비료성분을 허실함이 없이 유기질비료생산에 리용하도록 현장기술지도를 보다 심화시켜나갔다. 이와 함께 축산기지에서 나오는 물거름을 확보하는 사업도 놓치지 않았다.

결국 유기질비료의 질이 높아져 다음해농사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농장원들이 더욱 길이 새기게 된것이 있다.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며 질좋은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다수확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오은별

고리형순환생산체계확립과 과학농사

삭주군 읍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 몇해동안에 삭주군 읍협동농장은 제힘으로 일떠서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단위로, 축산과 온실남새생산 등 모든 면에서 군적으로 앞자리를 차지하는 농장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농장의 일군들은 고리형순환생산체계확립과 과학농사에 힘을 넣어 자랑할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축산이자 알곡증산이다

농장은 기상기후조건이 불리한 산간지대에 자리잡고있다. 돌이 많은 척박한 땅에서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다고 하면 누구나 선뜻 믿기 어려워한다.

10여년전 관리위원장사업을 시작한 안병수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일부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토심이 얕고 돌밭이 대부분인 농장의 실정에서는 알곡증수를 할수 없는것처럼 생각하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있었기때문이였다.

산골이라고 땅타발만 하여서는 언제 가도 우리 농장은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없는것으로 된다. 밭방과 산골에 지력이 높고 낮은 차이는 따로 있을수 있어도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겠다는 정신에서는 터끌만 한 차이도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도 축산을 활성화하여 지력을 높인다면 얼마든지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 농장의 실정에서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년간 질좋은 거름을 5천t이상 생산하면 지력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당의 뜻대로 축산에 힘을 넣자. 축산이자 질좋은 거름생산이고 알곡증산이며 농장을 추켜세울수 있는 위력한 담보이다.

그는 농장초급당위원장과 진지하게 토의하고 축산작업반부터 먼저 추켜세울것을 결심하였다. 여기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온 농장에 축산열풍을 일으키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축산작업반에 집짐승기르기경험이 있는 성원들을 새로 배치하고 대중을 발동하여 돼지, 닭, 오리, 게사니, 토끼우리를 새로 개건하였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들은 지력을 높이자면 어떻게 하나 축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내밀었다.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본받아 우량품종의 종자돼지를 마련하고 3원교잡체계도 받아들이였다. 또한 알낳이률이 높은 수백마리의 닭도 기르기 시작하였다. 한평의 빈땅이라도 찾아내여 개간하고 두벌농사도 하면서 온정복합굴을 비롯한 먹이첨가제들을 적극 도입하였다.

종자와 먹이보장,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수의방역사업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10여년세월 쉬임없이 근기있게 당정책을 결사관철해온 보람은 참으로 컸다. 축산작업반에는 많은 돼지와 수천마리의 닭, 게사니, 오리, 토끼가 우글거리게 되였고 거름더미가 높이높이 솟아났다.

축산작업반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작업반에서도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였다. 또한 한해에 새끼돼지 수백마리를 세대들에 나누어주어 여기에서만도 많은 고기와 거름을 생산할수 있었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되니 해마다 5천t이상의 거름이 확보되여 지력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

과학농사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축산이 잘되여 거름이 많이 나오고 지력이 높아질수록 농장에서는 과학농사에 더욱 힘을 넣었다.

과학농사이자 다수확이고 축산활성화의 튼튼한 담보이며 바로 여기에 비약의 지름길이 있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은 먼저 농장원들이 과학농사의 주인이 되여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여기서 작업반초급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게 한 문제를 놓고보자.

일군들은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송풍기적역할을 할수 있는 대상을 작업반초급일군들로 정하고 그들과의 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그것은 바로 작업반초급일군들이 농장원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준비시킬수 있는 위치에 있기때문이였다.

과학농사에서 작업반초급일군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가지 사실이 있었다.

지난해 왕가물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제3작업반의 정보당 수확고가 다른 작업반들보다 류달리 높았다. 지력을 비롯하여 농사조건은 다른 작업반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비결은 이곳 작업반장이 기술원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비료주기와 물관리를 비롯한 모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한데 있었다. 특히 비료를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이삭당 알수가 차이난다는것을 명심하고 조절비료는 대략 6월상순에, 다원소광물질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료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제때에 정확히 주도록 하였던것이다. 평당 이삭이 지수를 목표한대로 확보한 결과 다른 작업반에 비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었다.

이것은 작업반초급일군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한해농사의 성패가 크게 좌우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었다.

교훈을 찾은 일군들은 작업반초급일군들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일군들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서 국가망을 통하여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을 뽑아 자료기지를 만들어 먼저 작업반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부터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학습총화를 엄격히 하여 그들이 실력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농장원대중을 과학농사의 주인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도 대중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짜고들었다. 특히 농사일에 신심을 못 가지는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그들이 과학농사를 해야 다수확을 낼수 있다는것을 실지체험을 통하여 느끼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군들은 먼저 그런 농장원들에게 지력이 제일 높은 포전을 맡겨주었다.

그런데 지력상태가 좋은 포전을 맡은 농장원들속에서도 정보당 수확고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만도 정보당 수백kg의 손실을 보게 되였다. 일군들은 이 사실을 놓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포전을 담당한 농장원들의 기술수준차이가 수확고차이로 나타났다는것이 확증되였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땅을 맡겨주어도 농장원들이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응당한 생활력을 발휘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이 생동한 사실에서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 농장원들은 경쟁적으로 과학농사에 달라붙게 되였다. 농장원들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일군들은 그들을 과학농사의 직접적담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실례로 종전에는 영농공정을 앞두고 작업반장, 분조장들만 참가시키던 기술전습회에 모든 농장원을 참가시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원리적으로 깊이 있게 깨우쳐주었다.

과학기술은 기적을 낳는 힘이였다. 농장원들의 과학기술수준이 한계단 높아지는 속에 지난 시기보다 정보당 많은 알곡을 증수하게 되였다.

이 농장의 현실은 일군들이 고리형순환생산체계확립과 과학농사를 틀어쥐고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킬 때 산간지대에서도 장훈을 부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감혈

과일나무밑거름주기 결속

고산과수종합농장에서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음해과일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들은 뜻깊은 올해에 과일대풍을 마련한 자랑을 안고 이해의 마지막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과일나무밑거름주기를 지난해보다 10일 앞당겨 끝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일나무의 비배관리에서 기본은 영양관리를 잘하는것입니다.》

농장일군들은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다음해과일농사차비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정보당 20t의 거름을 낼 목표밑에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지난해보다 과일나무밑거름주기면적이 2배로 늘어난데 맞게 분장들에 꾸려진 돼지목장에서 더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기 위한데 힘을 넣도록 하는 한편 읍지구와 다른 지방에서도 유기질비료를 집중적으로 수송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비료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진거름에 화학비료와 상원카리, 붕소, 석회석, 린비료 등을 혼합하여 흙보산비료를 만들어 리용하도록 하였다.

다음해과일농사차비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각 돼지목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더 많은 물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전거름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전거름을 만들기 위해 톱밥, 나뭇잎, 풀, 짚 등 모든 것을 이용하였다. 톱밥은 나무가공공장에서 받아오고 나뭇잎은 산에 올라가 긁어오고 풀은 낫을 들고 나가 베였다. 이것은 모두 돼지의 먹이로 되였다. 이것은 돼지의 먹이로 되였다. 이것은 돼지의 먹이로 되였다. 이것은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의 위인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오는 12월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만고의 은인, 불세출의 대성인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은 국제관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해주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지난 세기말 세계사회주의운동은 예상밖의 시련을 겪었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붉은기가 내리워지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졌다.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리념무려가 잘못된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21세기는 사회주의가 없는 세기로 될것》이라고 떠들었다.

비극적인 혼란앞에서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많은 나라 정당, 단체들, 진보적인민들이 좌왕우왕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이 운명의 갈림길에 놓였던 그때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배신자들의 반사회주의궤변에 단호한 철추를 내리시고 불멸의 헌신과 탁월한 령도로 사회주의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에서 사회주의를 《전제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고 헐뜯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비난과 훼방이 날조이며 궤변에 불과하다는것을 낱낱이 밝가놓으시였다. 또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그 승리의 필연성을 철의 론리로 확증함으로써 사회주의를 헐뜯는 력사의 반동들의 온갖 궤변에 철추를 내리시였다.

사회주의승리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담고있는 로작의 구절구절은 거짓과 비방, 악랄한 모략만을 일삼던 반사회주의아성을 통째로 들부시는 강위력한 폭탄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사회주의가 력사무대에 《우연히 출현한 비과학적리념》이며 사회주의사회가 《전도가 없는 사회》인것처럼 헐뜯던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망동에 파멸을 선고하고 세계사회주의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불멸의 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의 진보적정당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이바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여러 사회주의나라에서의 집권당건설의 력사적교훈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시대와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요구하는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관한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많은 혁명적, 진보적정당들이 단결의 기치를 들고 세계사회주의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그 과정에 력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채택, 발표되였다. 평양선언의 발표는 주체사상의 기치,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새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반동들의 반사회주의광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던 그처럼 엄혹한 시기에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밝히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신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최대의 업적이 있고 특출한 위인상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숭고한 도덕의리와 열화같은 사랑으로 만민의 심장을 틀어잡고 세계를 움직이신 인덕의 화신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발표하시여 로동계급의 수령을 헐뜯고 혁명선배들의 성스러운 혁명투쟁과 업적을 모독한 기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행위를 반혁명적죄행으로,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마저 저버린 가장 비도덕적인 행위로 준렬히 단죄하시였다. 또한 우리 당과 인민은 맑스와 엥겔스, 레닌, 쓰딸린을 로동계급의 수령으로 존대하며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고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씨야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진행하실 때에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 있는 레닌묘를 찾으시여 화환을 진정하심으로써 조선혁명가들이 얼마나 고결한 혁명적신념과 도덕의리를 지니고있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온 세상에 보여주시였다.

형성을 한없는 격정으로 들끓게 한 절세위인의 무한대한 의리의 세계,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 사랑의 세계는 참으로 숭고한것이였다.

평양산원에서 태어나 꾸바와 팔레스티나에서 친선의 별, 희망의 꽃으로 불리우는 《새별》과 《진달래》라는 이름에도 절세위인의 사랑의 세계가 비껴있다.

한번 맺은 인연과 의리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키는 고결한 풍모를 지니신분,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극적을 초월하여 따뜻이 대해주시며 살뜰한 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후덥게 해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적대국의 정객들까지도 그 무한한 포용력과 넓은 도량에 저절로 머리를 숙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수호하시였을뿐아니라 고매한 덕성과 인품으로 세계를 움직이신 만고절세의 위인이시다.

리 효 진

선물식물들에 비낀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중앙식물원에는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의 정을 안고 외국의 벗들이 삼가 올린 선물식물들이 수없이 많다.

중앙식물원을 찾는 참관자들 누구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 꽃들과 청신한 정기를 담고 푸르싱싱하게 자라나는 관상용식물들, 건설적인 불사약재로 불리워왔다는 희귀한 약용식물들에 깃든 감동적인 사연을 들으며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군 한다.

말리의 사회제인사인 케이타 아두나가 선물로 올린 석결명이 그러하다. 그는 장수약재로 불리우는 석결명을 선물로 올리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지성을 다 바치였다.

당시 보건부문에서 사업하고 있던 녀성활동가의 한 사람인 케이타 아두나는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시대의 항도성으로 우러르며 그이의 탄생일을 앞두고 장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장수약재들을 탐문하였다.

그러던중 석결명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3년간이나 전국각지를 편답하면서 그 약재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

녀성의 몸으로 약재를 찾아 그가 걸은 길만 하여도 6 000여km에 달한다고 한다. 그는 끝내 약재를 찾아냈다. 그는 해를 두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여 약재의 진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과학적조성까지도 분석한 다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선물로 올리였다.

중앙식물원 국제친선식물관에 있는 나비꽃은 프랑스의 가브리엘 베쟈시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올린 선물식물이다.

절세의 위인을 따르는 만민의 뜨거운 마음을 상징하듯 심장모양의 푸르른 잎사귀며 위인의 인품에 매혹되여 그이를 우러르는 진보적인민들을 상징하듯 여러가지 색깔을 가진 우아한 나비모양의 꽃송이들.

이 꽃을 선물로 올리기 전까지 그는 우리 나라에 한번도 와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조선에서 전해지는 격동적인 소식들은 그의 가슴속에 우리 나라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유훈관철전에로 온 나라 인민을 불러일으키신분,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반동세력과 당당하게 맞서 세계자주화위업을 수호하며 더욱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시는 정의의 수호자이신 인류의 태양 김정일동지.

그는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매혹되였으며 자기의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싶은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그리하여 나비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꽃씨들과 꽃뿌리를 정성탐아 마련하였으며 그것을 위대한 장군님께 선물로 올려줄것을 우리 일군들에게 정중히 부탁하였다.

어찌 이뿐이랴. 주체86(1997)년 9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외국의 벗들이 삼가 올린 자주벚나무를 비롯한 선물식물들도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에 진정으로 매혹되고 그이를 높이 우러르며 따르려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이 어려있는 흠모의 결정체들이다.

본사기자 정 원 준

일본은 왜 21세기의 야만국가로 세인의 지탄을 받고있는가

이 행성에서 일본처럼 치욕의 악명과 오명들을 많이 보유하고있는 나라는 없다.

전범국, 정치난쟁이, 무뢰한, 경제동물, 외로운 섬나라…

참으로 오명잡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중에서도 세인의 저주와 조소를 모으는 최악의 대명사는 21세기의 야만국가이라는것이다.

최근 아시아와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서 줄곧 터져나온것은 지난 세기 조선민족과 아시아나라들에 저지른 치떨리는 반인륜적범죄에 대해 사죄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오만하고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일본을 향해 야만국가라고 하는 성토의 목소리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심심히 반성할 대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수용할수 없다, 상식밖의 일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행악질해대고있다.

과거죄악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은 일본의 악습이며 이로 하여 섬나라족속들이 세인으로부터 양복을 입은 원시인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인륜과 도덕, 상식과 리성, 국제법과 내외여론도 안중에 없는 정신적기형아, 전대미문의 정치적후진성과 도덕적저렬성으로 악명떨치는 일본이야말로 21세기의 야만국가가 아니고 무엇인가.

죄를 저질렀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저 노력하는것이 정상인간들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비범적으로 강점하고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을 감감 잊은듯이 놀아대고있다.

840만여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고역을 들씌우고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르기까지 무려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랍치하여 성노리개로 삼았으며 100여만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야수들이 일제침략자들이다.

나중에는 조선사람들을 저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식용》으로 잡아먹는 귀축같은 야만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고도 이 몹시리치는 죄악에 대해 《사실과 어긋난다.》느니,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라느니, 《사죄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느니 하고 전면부정해대고있는것이다.

얼마전에는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할데 대한 남조선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식밖의 판결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후안무치한 망동도 서슴지 않았고 박근혜패당이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무마시키려고 아베일당과 함께 밀실에서 조작해냈던 《화해, 치유재단》을 해산하는 결정을 남조선법원이 내린것도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항의하는 놀음까지 벌려댔다.

하기는 우리 민족과 아시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둔갑시키고 타민족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발전과 번영을 위한 《협력》과 《기여》로 매도하고있는것이 다름아닌 일본반동들이고보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리성과 량심, 륜리와 도덕이 있기때문이다.

짐승도 낯을 붉힐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한쪼각의 가책도 느낄줄 모를뿐아니라 오히려 피로 게발린 낯짝을 뻣뻣이 쳐드는 일본의 이마빡에는 야만의 딱지밖에 붙을것이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도이췰란드는 과거와 같은 죄악과 불행이 되풀이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세계의 수십개 나라와 수백수천만 피해자들에게 심심히 사죄하고 배상하였을뿐아니라 전시범죄시효자체를 폐지해버리고 90이 지난 고령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나치스범죄자들에 대해 준엄한 선고를 내리고있다.

그리고 일본을 향해서도 과거를 인정하고 잘못과 결별하지 않는 한 언제가도 정상국가로 될수 없다고 충고해주고있다.

그러나 야만국가 일본은 저들의 귀축같은 전범죄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사죄, 배상을 한사코 부정하며 미개하게 놀아대고있다.

일본은 조상대대로 야만적기질과 습성으로 악명높다.

일찌기 섬나라오랑캐들은 제소한 몸집에 《혼도시》를 걸치고 게다짝을 털썩거리며 칼부림과 해적질을 일삼은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과 아시아나라들로부터 미천한 부랑배족속으로 취급당해왔다.

왜구시기의 이 조야하고 원시적인 기질과 악습이 21세기의 오늘까지 고쳐지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물론 일본정객들이 과거범죄와 관련하여 《사죄》하고 《반성》하는 흉내를 낸적도 있다.

1991년 당시 수상이였던 미야자와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가한 《참을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대해 용서를 구했으며 1995년 무라야마 전 수상도 일제패망 50년을 계기로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식민지통치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과》를 표하였다. 전 수상 고이즈미도 지난 2002년 평양에 찾아와 조일평양선언을 통해 과거범죄를 인정하고 그 청산에 나서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그러나 그런 침발린 소리마저 이베와 같은 국우반동들이 일으키는 국수주의광풍에 가랑잎처럼 날아나버리고 재침의 칼가는 소리만이 더욱 요란하게 울리고있다.

현지는 앞선자가 걷은 실패와 치욕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는다 하였다.

그런데 현 일본당국자들은 《대동아공영권》을 떠들며 침략전쟁에 나섰다가 망한 전범자들의 뒤를 따르고있다.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여 날뛰는가 하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구일본군의 전범기를 국제무대에서 빼젖이 내흔들고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날강도적으로 놀아대고있다.

공격용항공기들과 각종 미싸일도입을 비롯하여 《자위대》무력을 공격형으로 재배치하고 온 렬도를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전쟁의 발사대로 만들기에 기승을 부리는 등 마치 분화구를 찾는 시뻘건 암장처럼 군국주의부활과 복수주의야욕, 재침열기에 휫떠서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제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헤덤비는것이 야수의 본능적인 동작이다.

《황군》의 누에기를 걸치고 《닛폰도》를 휘두르며 《야스구니진자》의 망령을 불러내는 야수의 무리 일본반동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의 조선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짓밟히고 수난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아니라 섬나라의 운명을 쥔 주에 쌓인 과거죄악과 함께 태평양에 수장시킬 거대한 힘을 지닌 나라이다.

죄많은 일본이 제 몸에 헌데처럼 돋아붙은 추악한 오명들과 결별하려면 비록 늦게나마 우리 민족앞에, 인류량심앞에 천인공노할 과거죄악에 대해 진심로 사죄반성하고 배상하여야 하며 재침의 개꿈을 미련없이 먼저버려야 한다.

야만국가 일본은 분별없이 놀아대기전에 수치가 무엇이고 량심이 무엇인가부터 배워야 한다.

이것이 죄악의 족쇄를 풀고 밟은 세상에로 나오기 위한 첫걸음이다.

김 연 이

《자유한국당》은 걷잡을수 없이 분렬될것이다

남조선언론이 주장

남조선의 한 언론이 원내대표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내에서 계파들사이에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있다고 전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박계와 복당파의 지지를 받는 인물과 친박계와 잔류파가 밀어주는 인물이 원내대표직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결하고있다. 친박계와 잔류파는 복당파가 또다시 원내대표직을 차지하게 할수 없으며 만약 자기들이 이번 선거에서 패하는 경우 당대표자리는 무조건 자기파가 장악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고있다고 한다. 하지만 비박계와 복당파는 원내대표자리는 물론 당대표자리까지 모두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버르고있다. 원내대표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계파들사이의 싸움이 얼마나 치렬했는지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서 공개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도하면서 언론은 《자유한국당》이 요즘 력하면 《계파청산》을 웨치지만 원내대표선거를 통해 계파들사이의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되고있다는것이 각계의 평가라고 전하였다. 언론은 《자유한국당》의 계파갈등이 계속 심화될 경우 다음해에 있게 될 《전당대회》과정에 당이 걷잡을수 없이 분렬되게 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본사기자

한심한 교육실태 개탄

지난 3일 남조선의 한 언론이 한심한 교육실태를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언론은 남조선에서 대학교육은 상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립대학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조선에서 대학의 소유와 운영을 전적으로 사립재단이 장악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배를 불리고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개탄하였다.

끝으로 언론은 남조선에서 교육문제는 교육의 구조를 바꾸는것만으로는 온전히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정등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사회제도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성폭력범죄의 진상규명 요구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련합이 3일 광주에서 토론회를 가지고 광주봉기당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문제에 대하여 론의하였다.

발언자들은 최근 광주봉기당시에 있은 성폭력범죄를 봉기군이나 경찰이 감행하였다는 거짓자료들이 인터네트홈페지들에 류포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당시 공수려단의 작전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가해자가 군인이였다는것을 기억하는 피해자의 증언을 놓고볼 때 명백한 허위라고 말하였다. 더우기 광주봉기당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거짓자료들이 만들어지고있는것은 민주화운동의 력사를 부정하고 군부독재세력의 죄행을 감싸려는데 있다고 그들은 까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보안법》의 부당성을 론증한 책 출판

7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보안법》의 부당성을 론증한 책이 출판되였다.

민주언론시민련합 리사가 쓴 《인문사회과학적시각으로 본 보안법》이라는 제목의 도서에는 《보안법》의 제정배경과 수십년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그 개악, 폐기를 둘러싼 법리론쟁 등을 인문사회과학적관점에서 분석한 내용들이 서술되여있다.

필자는 《보안법》은 1948년 12월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좌익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였으며 발생초기부터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사상과 리념의 자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리용된 반민주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안법》에 의해 외곡된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종북》탄압의 배경,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있는 내용들을 그는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보안법》이 국제사회의 비판대상이 되고있으며 외세가 《보안법》을 리용하여 조선반도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끝으로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화는 이루어질수 없다고 하면서 악법은 폐기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드러난 이전 《정권》시기 대법원의 매국행적

5일 남조선의 《CBS》방송에 의하면 이전 《정권》시기 대법원의 매국행적이 드러났다고 한다.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였던 임종헌은 2015년 10월 《헌법재판소》법관을 통해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기밀문건을 넘겨받아 일본전범기업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측에 불법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밀문건까지 빼내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만일 《한일청구권협정》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가능성이 커지기때문에 그가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측에 불법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밀문건까지 빼내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오늘의 세계

께르치해협사건을 둘러 싸고 심화되는 대립

11월 25일 흑해와 아조브해를 련결하는 께르치해협에서 로씨야가 자국령해를 침범한 3척의 우크라이나함선들을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로씨야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인들은 모두 모스크바로 압송되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년간 줄곧 대립상태에 있던 로씨야—우크라이나관계가 이를 계기로 더욱 첨예화될것이라고 예평하였다.

실지로 두 나라 관계는 날로 팽팽해지고있다.

께르치해협사건이 발생한 후 우크라이나는 반로씨야대결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일부 주들에 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전군이 완전전투태세에 진입하였다.

우크라이나외무성은 억류된 자국군인들을 지체없이 석방시키고 그들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할것을 요구하는 항의각서를 로씨야에 발송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로씨야와 체결하였던 약 40건의 쌍무협정을 파기하려 하고있다.

우크라이나가 취하는 조치들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현실화되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로씨야는 께르치해협에서 자국령해에 대한 우크라이나함선의 불법침입, 전시상태실시 등을 다음해 3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서 립지를 강화하기 위한 우크라이나당국의 계획적인 도발행위로 간주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 푸찐은 20개국수뇌자회의끝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포된 우크라이나함선의 항해일지는 께르치해협사건이 도발행위에 의해 산생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항해일지에는 비밀리에 로씨야령해에 침입하여 께르치해협을 항해할데 대한 임무가 기록되여있다고 하면서 해당 문건들과 억류된 군인들의 진술로부터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로씨야안전리사회 서기장은 나라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전시상태가 실시되면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선거가 취소될수 있다, 우크라이나대통령은 국경에서의 도발행위를 통해 명확한 계획이 없이 오직 카상적인 위협을 조성하여 선거공세를 펼치려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인들이 자기의 권력유지를 위해 임의의 범죄행위도 단행할 준비가 되여있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제물로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로씨야—우크라이나관계에서 눈석이시기가 오겠는지 아니면 빙하기가 지속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현재 량국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보아 후자의 정우가 들어맞을 확률이 더 높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림 원

우려를 자아내는 심각한 대기오염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겨울에 엘니뇨현상으로 조선반도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하게 나타날수 있다.

엘니뇨는 적도부근의 북태평양수역에서 바다물온도가 상승하면서 각이한 기후변동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엘니뇨현상은 올해 겨울에 또다시 시작될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조선반도에서는 겨울철기온이 정년보다 오르고 칼바람이 약화된다. 바람이 약하게 불면 대기정체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쌓이게 된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인체내에 들어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미세먼지에는 질산염과 같은 독성물질이 있어 그것이 폐와 혈관속까지 들어가면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질병들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나아가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를 죽음의 먼지라고 부르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2014년에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사망자가 전세계적으로 700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최근에도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있다.

지난 8월 25일 이란의 시스탄 발루치스탄주에서 먼지폭풍이 휘몰아쳐 심한 대기오염이 초래되였다. 그로 하여 약 810명이 호흡장애, 눈병, 심장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그중 170여명이 입원하였다.

교육 및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고 비행기운행이 취소되였다.

주의 기상당국은 미세먼지농도가 1㎥당 8 073㎍으로서 기준수치의 약 54배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1월초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서는 명절을 맞는 주민들이 폭죽을 터뜨린것으로 하여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 대기중의 미세먼지인 PM2.5의 농도가 1㎥당 999㎍에 이르러 기준수치를 훨씬 릉가하였다고 한다.

정부는 명절놀이시간을 제한하는 등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그전에도 대기중의 미세먼지농도가 기준수치를 초과한것과 관련하여 오물을 불태우는 현상을 없애고 디젤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의 운행을 금지시킨바 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세계의 지속적인 장성은 어려워질것이다.》고 경고하였다.

오염이 특별히 심각한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이다.

여기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흥미있는 사실자료가 있다.

2015년에 어느 한 나라의 전문가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끌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는 100일동안 출력이 센 흡진기를 가지고 수도의 한 구역을 걸어다니면서 공기중에 떠도는 초미세먼지를 수집하였다.

이 흡진기의 성능은 하루에 62명이 들이쉬는 공기를 빨아들일수 있다고 한다.

실험결과는 놀랄만 한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100일동안 공기속에서 수집한 초미세먼지를 모두 압착하여 벽돌을 만들었던것이다.

이 정도로 오염된 대기가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겠는가 하는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미세먼지농도가 높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건강관리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있다. 또한 산림조성사업, 재생에네르기개발리용 등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미국과 서방의 그릇된 정책 비난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6일 유럽안전협조기구 외무상리사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그릇된 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는 나토의 무분별한 확대와 동유럽에서의 무력증강, 유럽에서의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 무뚜번 구실밑에 실시되는 비합법적인 제재를 비롯하여 이 모든것은 유럽대서양지역을 불신의 위기에로 몰아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일부 나라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공갈과 위협, 압력을 일삼고 란폭한 내정간섭행위를 계속하고있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국가정변을 지원하고 마께도니아에 전례없는 압력을 가한것 등이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된다고 단죄하였다.

수리아보건시설을 폭격

미국주도의 련합군이 7일 수리아의 데이르 알 주르도에 대한 공습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이날 아침 도의 소도시 하진 상공에 날아든 련합군전투기들이 병원을 폭격하여 폐허로 만들어버렸으며 민간인 8명을 살해하였다고 한다.

반테로투쟁을 강화할 립장 강조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6일 트위터를 통하여 반테로투쟁을 강화할 립장을 밝혔다.

최근 외부세력의 후원을 받는 테로분자들이 차바하르에서 안전군을 목표로 테로공격을 감행한데 대해 규탄하고 그는 이러한 행위가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날 이슬람교혁명근위대 대변인은 테로분자들이 시종일관 이란의 국경지역에서 불안정을 조성하려고 책동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이번 공격의 배후에 외국정보기관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가 테로공격에 단호히 대응하며 테로분자들과 그 후원자들을 징벌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95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